

서울시 창작공간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 연구*

- 금천예술공장을 중심으로 -

박 신 의**

A Study on Perceptual Changes of Communities about Seoul Art Space*

- Focused on Geumcheon Art Factory -

Shin-Eui Park**

요약 : 본 연구는 서울시 창작공간 사업에 따른 지역주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창작공간의 사회적 영향 관계를 밝히려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가운데 산업지역으로서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금천구 소재의 금천예술공장을 대상으로 이론적 접근과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방법은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본 연구 결과, 전체적으로 창작공간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변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단지 그룹별(방문자, 프로그램 참여자, 비방문자)로 인식 변화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방문과 프로그램 참여가 인식 변화의 직접적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도 학력과 수입, 직업별 요인이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소를 감안함으로써 본 연구가 현재 창작공간이 갖는 쟁점을 성찰하며, 나아가 추후 창작공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데 참조자료가 되리라 기대된다.

주제어 : 창작공간, 금천예술공장, 예술의 사회적 영향, 인식 변화, 커뮤니티 아트, 문화민주주의

ABSTRACT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social impact of Art Space through examining the perceptual changes in Geumcheon community, a district that is included as part of Seoul Art Space Project. Geumcheon Art Factory, the focal arena of this study, is located in Geumcheon, the community that can be characterized as culturally fragile and heavily industrial. For data collection, surveys were mainly used as a research method, and it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approaches were borrowed from "social impact of the arts" studies.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i.e. the community members of Geumcheon) generally showed changes in their perception toward art and artists as well as acknowledged the positive role of the Geumcheon Art Factory for the environmental improvement of the local community. The data also showed that the perceptual changes of the participants groups(visitors, art program participants and non-visitors), were heavily influenced by the number of visits and the exposure to the art program offered at the facility; other influences were based on demographic figures such as the level of education, incomes, and the type of

* 본 논문의 완성을 위해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조교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소장(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Director, Center for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E-mail: lunapark@khu.ac.kr, Tel: 02-961-9211

profession. In this vein, we expect this study as a primary research to reflect on the issues of the Art Space and to redesign its role for the future.

Key Words : art space, Geumcheon Art Factory, social impact of the arts, perceptual changes, community art, cultural democracy

I. 서론

서울시는 2009년부터 서울 시내 유휴시설을 창작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예술가와 시민의 창조적 역량을 높이며 도시 재생의 이념을 구현한다는 취지의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의 컬러노믹스 정책과 관련하여 '창의문화도시 구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시 곳곳의 유휴 공공청사나 구공업지역의 폐공장, 상권이 쇠락한 지하상가 등 낙후된 지역의 공간을 예술창작공간으로 재생하는 아트팩토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2009년에 4개의 공간이 문을 열었고 지금까지 모두 9개의 공간이 조성되었는데, 그 중 하나는 2007년에 조성된 잠실창작스튜디오가 이 구조에 통합되면서 합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창작공간은 국내외 예술인에게는 창작 공간 및 창작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에게는 문화예술 향유와 소통의 즐거움을 제공하여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서울만의 문화명소로 만들어 가는 것을 미션과 비전의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예술과 지역 간의 협력모델을 개발하여 지역 재생의 문화적 틀을 마련하고, 창의적인 지역 커뮤니티의 형성을 도와 문화 프로슈머 육성에 도움을 준다는 활동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결국 진취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창작활

동 지원과 시민의 생활 속에서 향유되는 예술 활동, 경계를 허무는 소통을 통해 '창조-재생-소통'이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간다고 밝히고 있다.¹⁾

이러한 구도 속에서 서울시는 서울문화재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간 재단의 창작공간본부가 총괄해 왔으며, 2013년부터는 자치구가 운영하는 공간을 제외한 6개 공간을 공유사업으로 운영하게 됨에 따라 전문성과 적극적인 사업의 운영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업 시작 이후 3년의 시점을 넘어서는 지금, 이러한 정책 목표에 대한 창작공간의 존재론적 효과나 의미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물론 애초에 의도했던 효과가 3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그대로 드러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단계별로 접근한다는 의미에서 일단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또한 방법론적으로도 변화에 대한 효과 측정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연구 대상으로 선정된 창작공간은 비교적 초기에 조성된 금천구 소재 금천예술공장(2009년 10월 개관)이다. 금천예술공장은 1970년대 전화기 코일 공장에서 1990년대 인쇄공장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서울시가 매입하여 창작공간으로 전환한 것이다. 예술공장이 입지한 독산동은 상가와 공장, 공동주택, 저소득층 주민 구성 비율이 상대적

1) 서울시창작공간은 서교예술센터, 금천예술공장, 신당창작아케이드, 연희문화창작촌, 문래예술공장, 성북예술창작센터,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홍은창작센터, 잠실창작스튜디오와 함께 남산예술센터와 남산창작센터를 포함하여 모두 11개 공간으로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참조할 수 있다. <http://www.seoulartspace.or.kr/introduce/vision.asp>

으로 높은 지역이다. 또한 금천구는 경수산업도로를 중심으로 주요 중간재 산업체들과 유통업체들이 분포하고 있어 서울시 산업의 중심지역을 형성하고 있으나, 산업체 및 관련 시설들의 입지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여타 지역에 비해 열악할 뿐 아니라 문화 및 복지 관련 시설의 입지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정희선·김희선, 2010). 이에 따라 금천구의 지역이미지는 '공업단지' 및 '외국인 노동자 집중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고, 서울시는 금천예술공장으로 인하여 지역의 이미지 제고와 생활환경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창작공간을 통해 '예술가 창작지원' 외 '지역재생'과 '시민문화예술 향유'라는 3개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 정책 목표를 염두에 두고 지역주민의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인식 변화를 추적하며, 궁극적으로 창작공간의 지역사회에 대한 사회적 영향관계를 가늠할 기초 연구로서 의미를 갖고자 한다. 실제로 3년 단위에서 기대할 수 있는 창작공간의 지역적 의미는 지역주민의 인식 변화에서 출발한다는 전제를 두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예술의 사회적 영향' (social impact of the arts) 관계를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취하였다. 사회적 영향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론으로서 경제적 파급효과와 달리 사회적 관계의 층위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탐색하는 것이다. 실제로 예술 분야에서의 연구가 국내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기초적인 수준에서나마 본 연구를 통해 방법론 적용과 실행을 시도해 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분석 작업이 이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위해 기존 예술시설과 다른 창작공간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창작공간과 커뮤니티 아트의 정책적 배경인 '문화민주주의'를 살펴보고, 궁극적으로 창작공간의 지역적 영향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의 쟁점을 정리한다.

1. 창작공간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서울시가 창작공간을 조성하면서 제시한 정책적 목표와 효과는 예술가에게 창작공간을 지원하고, 그 자체로 지역사회와의 연결지점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에게 문화적 혜택이 돌아가게 하며, 지역 재생의 효과를 더불어 이루려는 데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창작공간은 여타의 문화예술시설, 즉 엘리트 예술을 배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미술관이나 극장, 콘서트홀과 오페라하우스 등과 달리 지역사회와 호흡을 같이 한다는 특수성이 공존한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문화정책에서 문화예술시설의 건립은 매우 중요한 목표와 효과를 염두에 둔다. 즉 시설을 매개로 예술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넓히고 향유층을 확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화예술시설의 유형은 문화정책이 발전하면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그에 따라 시설에 대한 기대효과도 다르게 주어진다. 초기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엘리트 예술을 중심으로 한 배급 기능을 전담하는 시설에 집중된다. 예술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고, 가능하면 많은 대중이 예술작품과 최대한 접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서 논란의 소지가 발생한다.

예술의 수월성을 목표로 하는 엘리트 예술은

그 자체로 대중의 눈높이와 일치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현대예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는 여전히 낮고, 또 그러한 문제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계층적 차원에서 다르게 드러난다. 그런 점에서 예술과 대중 간에 존재하는 간극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 교육 활동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대중이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노동자나 빈민층, 이주민, 청소년의 예술 향유를 고민하고, 사회 갈등과 문제를 해소하는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는 노력도 중요한 과제가 된다.

사실 문화정책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의 초기 정책 시기(60~70년대)와 80년대 자끄 랑(Jack Lang)의 정책 변화로 요약될 수 있다. 앙드레 말로는 '문화의 집'²⁾(Maison de la culture)을 통해 예술적 수월성을 널리 보급하고 전 지역, 전 계층의 프랑스 국민이 향유의 기회를 확보한다는 관점을 고수해 왔다. 그로서는 전문 예술시설과 공간을 통해 대중이 최대한 예술작품을 접하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 점으로 인해 엘리트 예술에 집중하는 정책적 관점에 많은 비판이 가해지기도 했다.³⁾

80년대 자끄 랑 시대에서는 이러한 논쟁이 나름대로 성숙해 간 것과 더불어 실제로 다양한 유형의 문화예술시설과 공간이 급증하던 시기였다. 그는 엘리트 예술에 집중하는 문화의 집 외에 예

술의 사회문화적 행동을 매개로 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념에 있어서도 단순한 문화 향유만이 아니라 문화로 인한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중시하였다. 특별한 공간(극장, 미술관 등)에서 특별한 기회(관람을 목표로 방문)에 대중과 만나는 것이 아닌 일상적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예술을 만나는 일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농촌과 병원, 감옥, 학교, 소외지역과 관광지 등으로 찾아가는 예술을 실천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예술을 통한 지역 발전과 경제적 활성화 등의 효과에 의미를 두는 변화를 만들어갔다(de Waresquiel, 2001).

그 가운데 낙후된 지역에 설치된 창작공간(résidence d'artistes)에 대해서는 이러한 맥락이 보다 더 분명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곧 1990년대 들어 제기된 요구와 맞물리는데, 예술이 더욱 더 생활공간에 밀접하게 다가가기 위한 방안에서 비롯된 것이다. 창작공간은 기존에 있던 시설 외에 새롭게 지역사회로 파고 들어가는 형태로서, 대체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건물이나 폐산업시설 등을 활용하는 공간이나 카페 형식을 활용한 문화공간과 같은 대안공간을 모두 포함하였다. 그리고 창작공간에서 수용하는 예술장르에서의 확대도 중요한 쟁점인데, 일테면 낙후된 지역에서 생성되는 새로운 문화 형태인 힙합이나 랩과 같은 내용이 수용되고 보급되는 양상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프랑스의 주요 활동가와 이론가들의 논쟁도 활발해진 시기가 90년대이다. 예술사회학자 위그 바쟁(Hugues Bazin)에 따르

2) 문화의 집은 프랑스 초대 문화부장관인 앙드레 말로가 모든 국민이 최고의 예술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전 지역에 건립하겠다고 천명한 후 르아브르와 부르주 등에 지어졌으나, 이후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1990년대 들어 국립무대(Scène Nationale)라는 명칭으로 바뀌었다. 현재 아미앵이나 그르노블 등의 몇몇 지역에서만 문화의 집이라는 명칭이 유지되고 있다.

3) 앙드레 말로는 엘리트 예술의 수월성과 대중이 갖는 예술에 대한 거리감을 인정했지만, 그렇다고 대중적 교육을 통해 극복된다고 보는 일종의 대중주의적 입장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가능하면 직접 예술작품과 대중이 만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면 창작공간은 본질적으로 예술과 사회의 관계 속에서 논의되는 것이다. '예술을 위한 예술'이나 '예술의 사회적 효용성'의 논쟁을 이분법적으로 이해하지 않는 가운데 그 둘 사이의 상호관계를 해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힙합이 사회적 의미이자 미학적 힘을 동시에 갖는 것이기 때문에 창작공간에서 포용할 수 있다고 본다.⁴⁾ 따라서 예술의 사회화란 '어떻게 예술이 사람들의 삶 속에 다가가는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 예술을 끌어들이느냐'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가 정의하는 창작공간은 '예술가나 예술단체들이 다양한 기간 동안 거주하는 가운데 창작공간이 소재한 지역의 환경을 염두에 두면서 창작 활동을 성취하기 위한 공간'(Bazin, 1998)이다. 바로 여기서 작품을 완성하는 예술적 차원과 지역 환경을 염두에 둔다는 맥락에서의 사회적 차원이 공존한다. 이에 따라 창작공간은 지역적 맥락 속에서 새롭게 문화를 만들어가며 이를 지역 사회와 공유하며 확산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달리 말하면 사회적 공간과 예술적 공간의 경계를 흐려놓음으로써 '틈새 공간'(l'espace interstitiel)으로서의 의미를 열어놓는 것이고, 여기서 커뮤니티 아트에의 근거도 발생한다.

2. 정책적 배경으로서의 문화민주주의

금천예술공장은 지역 내 창작공간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작가들에 대한 공간 지원 외에도 지역사회에 개입해 가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있다. 여기서 커뮤니티 아트

에 대한 원론적 기술이나 설명은 유보하면서 단지 커뮤니티 아트를 통해 예술 창작의 의미와 예술 창작 주체의 의미가 다양해지는 지점, 그리고 예술가의 역할이 매개자로서, 프로젝트 개발자로서의 의미가 부여되는 부분을 강조하고자 한다.

바로 이러한 예술적 지점과 앞서 말한 틈새 공간의 의미가 실제로 지역의 창작공간에 부여하는 정책적 이념을 선택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문화의 민주화'(democratization of culture)와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의 이념적 차이에서 선택의 문제가 주어진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창작공간의 지역적 역할은 문화민주주의의 이념에 따른 연관성을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엘리트 예술의 배급방식을 고수하는 기존의 문화예술시설은 문화의 민주화와 관련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로 보긴 어렵다. 단지 예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비교 우위적 논의를 할 수는 있다고 하겠다.

문화민주주의의 이념은 1980년대 자끄 랑 시대에 문화다양성과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발전이라는 정책 기조와 함께 자리 잡았다.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하위문화의 발달, 문화관광의 산업적 효과, 도시 발달과의 연관성 등이 새로운 고려대상이 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요구된 것이다. 물론 예술 자체의 힘, 즉 예술가에 대한 존중과 그들의 전문적인 창작 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인이 배제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엘리트 예술의 일방적 보급이라는 틀이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의 문화 개념을 전제로 하게 되면서 문화 영역

4) 만일 미학적 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회적 의미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 사회적 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바로 미학적 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술을 위한 삶'과 '삶을 위한 예술' 간에 상호관계성이 존재한다... 힙합은 교육적 도구이자 사회적 효용성을 갖는 것이면서도 게토지역의 이념을 녹아낸 예술로 간주됨에 따라 창작공간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Bazin, 1998: 78).

이 확장되고, 또 문화 간 위계질서를 용납하지 않으며, 문화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구분하지 않는 새로운 대중과 주체 개념이 제기된 것이다.⁵⁾

특별히 창작공간을 매개로 진보적 예술인들이 문화민주주의 이념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서 새로운 담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사회학자 파브리스 라펜(Fabrice Raffin)은 문화민주주의로 인해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와 다양한 풀뿌리 문화가 가능해졌으며, 1990년대 이후 폐산업시설을 활용한 창작공간을 통해 이러한 실천이 큰 성과를 이루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Raffin, 2010). 또한 지역의 창작공간을 통해 이민자 및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지역 프로그램을 실행한 바 있는 장 위흐스텔(Jean Hurstel)은 문화의 민주화로 인한 실질적인 영향력과 효과는 제한적이었음을 역설한 바 있다.⁶⁾ 정부 주도의 문화정책과 시설은 대규모 예산을 투여한 일종의 중앙집권적 하향적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도시의 거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문화적 기반을 우선하기보다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큰 효과를 보기 위한 도시 브랜드 효과에 치중하고, 도시 근교의 열악한 문화적 환경에 대해 고급문화와 도시 중심의 비교 우위적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했을 뿐이라는 것이다(Hurstel, 2009).

3.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의 쟁점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일은 매우 절실한 사안이다. 가장 먼저 예술에 대한 공

공 투자의 당위성을 언어내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접근은 필수적인 선택이 되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정부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옹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예술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이제까지 사회학적 방법론을 통한 선호도 조사, 인식 변화 연구와 더불어 사회적 영향평가에 이르는 일련의 시도들이 있어 왔다.

미국의 사회학자 폴 디마지오(Paul DiMaggio)는 1997년 '대중의 예술에 대한 인식'(Public Sentiment Towards the Arts) 조사를 통해 사람들이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원의 당위성을 과연 인정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그간에 이루어진 연구들을 분석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예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감성에 대한 1973년부터 1993년 동안 진행된 13개 연구를 재해석 하였다. 그에 따라 정책 입안자들이 주목할 만한 결과를 제시하게 되었다. 예술에 대한 공공지원의 당위성과 지원의 범위, 아동에 대한 예술교육의 가치와 필요성, 커뮤니티의 삶의 질과 관련한 가치, 예술에 대한 인식 연구를 성별, 인종별, 교육수준별, 경제적 수준별, 연령별로 살펴본 데이터의 의미,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패턴이 시간이 지난 지금에 얼마나 설득력을 갖는지에 대한 부분이다(Pettit and DiMaggio, 1997).

이러한 인식 및 태도의 변화에 대한 추적과 더불어 예술의 사회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창조도시 이론가인 찰스 랜드리(Charles Landry)가 운영하는 '코미디아'(Comedia)를 통해 1993년에 제

5) 순수예술의 범주에서 만화와 패션, 힙합과 록, 랩, 민속문화, 거리예술, 서커스 등에 이르는 예술장르의 확대를 중심으로, 이민자에 대한 문화 다양성 논의와 실천, 전문가와 아마추어 간의 경계 철폐 등의 쟁점이 이에 해당한다.

6) 일례로 브뤼셀의 창작공간 레 알 드 샤에벡(Lez Halles de Schaerbeek)의 운영위원장인 그는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2008년 '유럽의 상호문화적 대화의 해' 선포와 더불어 '이웃'이라는 개념을 활동 단위로 설정하여 다양한 지역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박신의(2011)의 논문 참조

〈표 1〉 문화예술의 사회에 대한 기여

직접적 사회 영향	· 문화예술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서 사람들의 사고를 '고양'시키고 그들의 심리 및 사회 복지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감수성을 발달시킨다.
간접적 사회 영향	· 예술은 공공 편의시설을 만족스럽게 하거나 활기 넘치게 만듦으로써 사회적 환경을 풍요롭게 한다. · 예술은 '문명화' 효과와 사회적 조직(아마추어 예술 등)의 자원이 된다. · 예술 활동은 창의성을 고무함으로써 기존의 사유방식을 넘어서게 하고 혁신을 가능케 한다. · 예술작품과 문화 산물은 커뮤니티의 집단적 '기억'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창의적이고 지적인 아이디어를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 · 문화예술 제도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 영역에서 개인적 안전을 강화하며 길거리 폭력과 범죄를 감소시킨다.

자료: The European Task Force on Culture and Development(1997), Reeves(2002: 30)에서 재인용

기된 정의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예술의 사회적 효과는 다양한 예술 체험을 거쳐 개인의 삶에 대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혹은 행동양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변화에 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되면서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파급효과와는 다른 목표와 구조를 갖는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 가운데 '문화 발전 유럽 테스크 포스'(The European Task Force on Culture and Development)가 제시한 직접적 사회 영향과 간접적 사회 영향에 대한 정의는 문제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어주었다(Reeves, 2002).

사회적 영향 연구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개념과 방법론을 개진해 갔고, 특히 예술이 지역사회에 대해 변화를 주도하는 부분에 집중되었다(Guetzkow, 2002).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Social Impact of the Arts Project'(SIAP) 연구팀은 1994년부터 예술이 지역의 환경과 일상생활 개선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해 '스필오버 효과'(spillover effects)⁷⁾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와 대중 건강, 시민 참여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방법론에 있어서는 양적, 질적 분석을 병행하는 가운데 1995년에

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기도 했다.

다른 한편 영국예술위원회로부터 프로젝트를 위임받아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를 진행한 워릭(Warwick)대학 문화정책연구소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네 단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⁸⁾ 연구소가 1994년부터 발간하는 『국제문화정책』 학술지를 통해 발표하는 동시에 출판물로 엮어내면서 광범한 문헌 연구 분석부터 미적 체험을 주도하는 인식론적, 심리학적, 사회문화적 원리를 조사하며, 문학 장르를 대상으로 개념적 난제를 극복하는 연구를 개진하고, 궁극적으로 평가 방식 개발에 기여하였다.

또한 월리스 재단(The Wallace Foundation)의 RAND 예술연구센터에서는 2004년에 예술의 효과에 대한 연구서를 출간하는 등 다양한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를 진행해 새로운 지점을 제시하였다. 즉 예술의 혜택 정도를 개인에서 대중으로 전개되는 양상에 따라 그 효과를 지표화하고, 특히 명백한 효과로 드러나는 도구적 혜택(instrumental benefits)의 차원(인식 및 태도의

7) 경제 용어에서 '스필오버'는 어떤 요소의 생산활동이 그 요소의 생산성 또는 다른 요소의 생산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올리는 효과를 말한다.

8) 단계별 연구결과 가운데 하나가 Belfiore and Benneff(2008)의 저서로 이어졌다.

변화, 경제 및 사회적 효과 등)만이 아니라 본질적 혜택(intrinsic benefits)의 차원(매료, 쾌락, 공감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McCarthy et al., 2004).⁹⁾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예술진흥협회(Americans for the Arts)의 민주주의 활성화(Animating Democracy) 프로그램의 일환인 예술 및 시민참여 영향 연구(Arts & Civic Engagement Impact Initiative)를 통한 결과가 있다. 여기서 특별히 사회 영향 평가 지표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것은 '인식과 지식의 변화'에서 '태도 및 동기의 변화', '행동 및 참여도의 변화', '담론의 변화', '능력의 변화', 그리고 '제도, 정책, 조건의 변화' 등 여섯 개의 군으로 구성된다(Bacon and Korza, 2010). 그럼에도 여전히 측정이 쉽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를 위해 설문조사와 집중인터뷰,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한 쟁점 분석 등을 통해 연구 내용을 채워가고 있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이처럼 이론적 배경을 통해 우리는 금천예술공장이 지역사회에서 새로운 창작공간의 역할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실제로 금천예술공장은 글로벌 미학과 지역성을 실험하는 국제 레지던스로서의 위상을 제기하는 가운데 작가 지원 및 육성, 시민문화향유, 도시재생을 미션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예술가 교환 프로그램과 국제 공동 프로젝트 등의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지역사회 프로그램으로는 입주작

가들이 중·고등학교와 산업단지 근로자와 함께하는 창작 워크숍과 커뮤니티 아트 프로젝트, 오픈 스튜디오 등이 제공된다. 시설 여건을 보면, 연면적 3,070m² 규모로 스튜디오 19실과 강당(전시장 겸용), 공동작업장, 미디어랩, 식당 등을 갖추고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창작공간으로서 문화민주주의의 염원 속에서 주민의 참여와 문화의 다양성을 생산하며, 그 자체로 주민의 예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낙후된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창작공간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추적하는 일종의 '예술의 사회적 영향' 연구의 기초단위로서, 금천예술공장의 역할과 지역적 영향 관계를 기준으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¹⁰⁾

설문조사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실시되었다. 온라인 설문은 금천예술공장 방문객이나 프로그램 참여자 가운데 지역주민을 선별하여 2012년 8월 20일~9월 1일까지 실시하였고, 오프라인 조사는 2012년 8월 23일, 29일, 30일 등 3일 간 실시되었다. 현장 방문은 금천예술공장 주변에 위치한 자동차정비소, 의류공장, 세탁소, 식당, 슈퍼, 부동산 등을 비롯하여, 두 개 블록 정도 떨어진 아파트 경비실, 부동산, 버스회사, 슈퍼, 문구점, 식당, 가게 등으로 한정하였다. 특별히 현장 방문 조사를 진행하면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면접(17명)을 실시하여 개별적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9) '예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기한 루스 렌츠러(Ruth Rentschler) 역시 RAND 연구를 인용함으로써 직접적이고도 가시적인 지점만이 아니라 예술의 내재적 가치를 수용함에 따라 보다 통합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Ramsey and Rentschler, 2005).

10) 설문대상자는 기본적으로 금천예술공장의 존재와 활동을 알고 있는 지역주민 및 지역에서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특히 방문자 및 프로그램 참여자의 경우 금천예술공장 스텝진으로부터 리스트를 받았고, 그 가운데 지역거주 및 직업활동을 하는 대상으로 제한하여 진행하였다.

총 101명의 설문 응답(온라인 19명, 오프라인 82명)이 수거되었으나 허수 처리된 4개의 응답지를 제외한 97개의 유효응답지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설문지의 내용은 창작공간의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속에서 지역주민의 인식 변화를 묻는 형식으로 설계되었다. 인식 변화에 대해서는 미국예술진흥협회에서 개발한 여섯 군의 지표를 참조하여 인식 및 태도의 변화, 참여도와 능력의 변화, 제도 및 정책의 변화 등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금천예술공장의 존재로 인한 지역적 변화를 물었고, 인식 변화의 계기를 조사함으로써 창작공간의 역할 변화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또한 서울시가 창작공간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와 관련한 내

용도 염두에 두었다. 먼저 창작활동을 특별한 계층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보는 변화의 지점(문화민주주의)을 배치하였고, 예술이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고 보는 지점(도시 재생), 그리고 지역주민의 창작공간에 대한 참여 의지와 활동의 요구에 따른 공간 성격의 강화(창작공간의 지역적 역할) 지점을 의식적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인식 변화의 정도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설문 대상을 세 부류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는 '방문자' 그룹(45명, 금천예술공장 행사 시 방문이거나 우연히 방문한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 그룹(18명, 금천예술공장 커뮤니티 프로그램 참여나 연습장 등 시설 이용의 경우), '비방문자'

<표 2> 설문 구성

설문항목		설문내용
인지 상황		금천예술공장에 대한 인지 수준
		운영주체에 대한 인지 여부
		알게 된 경로
방문 형태	방문 경험 있는 경우	방문 횟수
		방문 동기
		동행자
		방문 경험 없는 경우 방문 의지 유무
예술체험 형태		예술체험에 대한 경험 유무
		예술에 대한 생각
		예술가와의 만남 경험 유무
		예술가에 대한 생각
인식 변화	예술 및 예술가	금천예술공장을 통한 인식 변화 유무 및 정도
		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
		예술가에 대한 인식 변화
		인식 변화 요인
	금천예술공장 존재	지역 내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
금천예술공장에 대한 태도 및 관심		지역사회 프로그램의 인지 여부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의사 여부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점

그룹(34명, 방문 경험은 없지만 금천예술공장을 알고 있는 경우)이 그것이다. 이러한 그룹의 구분은 인식변화의 유무와 요인, 인식변화의 정도, 추후 참여 의지나 관계 형성의 의견을 비교함으로써 추후 금천예술공장의 지역주민 프로그램이나 시설 운영에 대한 제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IV. 연구 결과 분석

1. 전체 응답 분석

1) 인지 및 방문형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금천예술공장 주변에 거주하거나 직업 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직업 분야에서도 자영업(20.6%), 생산직(27.8%)이 큰 분포를 이루어 지역적 성격이 적절히 반영되었다고 하겠다.

인지 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금천예술공장을 비교적 잘 알고 있었으며(84.5%), 또 운영 주체가 서울문화재단이라는 사실도 반 이상 알고 있었다(55.7%). 금천예술공장을 알게 된 경로는 같은 지역에 거주하면서(42.7%), 혹은 주변의 소개(39.6%)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별히 인터넷 매체를 통해 알게 되는 경로를 묻는 지점에서는 5명(5.2%)이 답을 주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SNS와 관련한 소통방식을 염두에 두면 응답자 수가 유의미해질 수 있다고 본다.

방문 형태를 보면 방문 경험(64.9%)이 있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고, 방문 횟수는 1~2회(34.4%), 7회 이상(31.3%), 3~4회(26.6%) 순으로 나타났다. 7회 이상 방문의 경우 프로그램 참여자 18명이 포함된 것이다. 방문 동기는 전시 등 행사관람(38.6%)이나 커뮤니티 프로그램 참여(17.1%)와

〈표 3〉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변수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37	38.1
	여성	60	61.9
연령	10대	6	6.2
	20대	2	2.1
	30대	15	15.4
	40대	36	37.1
	50대	33	34.0
	60대 이상	5	5.2
주민 여부	예	51	52.6
	아니오	46	47.4
주민 거주 기간	3년 미만	1	2.0
	3~7년 미만	5	9.8
	7~9년 미만	6	11.8
	9년 이상	39	76.4
금천 지역 방문 계기	직업활동	37	62.7
	프로그램 참여	10	16.9
	친인척 방문	1	1.7
	학교, 병원 등 이용	5	8.5
학력	기타	6	10.2
	초등학교	3	3.2
	중·고등학교	55	59.1
	전문대·대학교	25	26.9
월평균 소득	대학원 졸업 이상	10	10.8
	100만원 이하	14	16.5
	250만원 이하	29	34.1
	350만원 이하	21	24.7
	550만원 이하	15	17.6
직업	550만원 초과	6	7.1
	전업주부	14	14.4
	자영업	20	20.6
	생산직	27	27.8
	서비스직	5	5.2
	사무행정직	6	6.2
	학생	7	7.3
	일반 공무원	1	1.0
	일반전문직	1	1.0
	교육 전문인력	7	7.3
기타	예술가	1	1.0
	기타	8	8.2

무응답률: 학력 4.1%, 소득 12.4%

같이 행사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방문이 주를 이루었다. 방문 동행은 혼자(28.4%), 지역주민(19.4%), 친구(19.4%), 가족(16.4%) 등에서 균등한 분포를 보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방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금천예술공장의 존재는 알고 있는 경우(35.1%)에서 다수(80.4%)가 추후 방문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2) 예술체험형태

전체적으로 예술을 체험해 본 경험에 대해 대다수(80.4%)가 그렇다고 답을 했다. 예술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흥미롭게 생각한다'(37.0%), '교육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29.0%), '현실을 뛰어넘는 뭔가 멋진 것이다'(16.0%) 순으로 나타나 비교적 호의적인 의견이 앞섰다.

예술가와 만난 경험은 그렇지 않은 경우(54.6%)가 그런 경우(45.4%)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예술가에 대한 생각은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자'(50.0%)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특별한 재주를 가진 자'(19.2%), '독특한 취향을 가진 자'(12.5%), '전문예술교육을 받은 자'(9.6%) 순으로 나타났다.

3) 인식 변화

금천예술공장을 통해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생각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다(52.6%)가 그렇다(47.4%)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인식 변화 정도를 물었을 때 '약간 바뀌었다'(35.6%)가 가장 많았고, '보통 수준'과 '상당히 바뀌었다'(24.4%)가 동일한 수준으로 주어졌다.

예술에 대한 인식변화에서는 '예술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53.7%)가 가장 많았고, '예술은 특정 부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18.5%),

'예술을 감상하는 데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1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술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는 변화는 예술을 접하면서 갖는 출발단계의 의미로 해석되고, 예술이 특정 부류의 것이 아니며 예술 감상에서 굳이 교육이 필요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은 훨씬 적극적인 변화의 결과라 하겠다.

예술가에 대한 인식변화에서는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존재라 생각했다'(34.7%)가 가장 많았고, '거부감이 다소 줄었다'(22.4%), '사회적으로 필요한 존재라 생각했다'(20.4%)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비중은 낮지만 '나 자신도 예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10.2%)는 그룹의 경우 자신을 창작 주체로서 의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예술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은 이유로는 '여전히 예술과 예술가에 대해 잘 모르겠다'(32.8%)가 가장 많았고, '예술은 교육을 많이 받은 계층의 전유물이라 생각한다'(19.0%), '예술에 대해 별반 관심이 없다'(13.8%) 순으로 드러났다. 특별히 예술에 대한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경우는 다시 그룹별 구분을 통해 점검해 보겠지만, 실제로 금천예술공장을 방문한 경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금천예술공장에 대한 태도 및 관심

지역 내에서 금천예술공장으로 인해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느냐에 대해 대다수(87.4%)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그 이유로는 '주변 환경이 문화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기대한다'(23.8%)와 '지역 내 예술시설이 있어 좋다'(22.4%), '지역주민이 예술을 체험할 수 있다'(22.4%), '금천구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16.3%) 순으로 나타났다.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금천예술공장은 알

지만 우리와는 다른 곳이라 생각한다'(32.0%), '변화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지만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32.0%)가 가장 많았고, '여전히 접근하기 어렵게 느껴진다'(12.0%), '예술 시설이 공장지대에 있어 지역적 괴리감을 조성한다'(12.0%) 순으로 나타났다.

금천예술공장을 방문하거나 프로그램 참여 등의 참여 의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다수(79.2%)가 그렇다는 답변을 보였다. 금천예술공장이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필요한 점을 묻은 경우에서 '예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23.0%)과 '보다 적극적인 지역주민의 초대'(17.1%), '지역주민에게 연습장이나 전시장 시설 개방'(16.6%), '지역사회 프로그램 강화'(10.7%), '금천의 예술 동아리 모임 장소로 활용'(10.2%), '지역으로 파고 들어가는 프로그램 개발'(9.1%), '예술가와의 만남을 주기적으로 마련'(8.6%)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2. 그룹별 인식 변화 분석

전체 응답에서 그룹별 인식 변화를 보기 위해 다시 분류해 보았다. 첫 번째 방문자 그룹(45명, 46.4%)은 금천예술공장을 행사 관람 등의 기회로 방문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 프로그램 참여자 그룹(18명, 18.6%)은 실제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여나 밴드 활동으로 시설을 이용한 경우이며, 세 번째 비방문자 그룹(34명, 35.1%)은 금천예술공장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방문해 보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접근은 인식 변화의 정도가 방문 여부, 그리고 단순 방문이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와의 상관관계를 살피기 위함이다. 또한 금천예술공장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3년 동안 방문해 보지 않은 지역주민의 창작공간에 대한 인식과 인구통계학적 사항을 함께 확인해 봄으로써 창작공간의 지역적 역할에 대한 방향을 가늠해 볼 필요

<표 4> 그룹별 예술 및 예술가에 대한 인식 변화

구분		방문자		프로그램 참여자		비방문자	
		빈도	%	빈도	%	빈도	%
금천예술공장을 통한 예술 및 예술가에 대한 인식 변화	있다	27	60.5	10	55.6	9	26.5
	없다	18	39.5	8	44.4	25	73.5
예술에 대한 인식 변화	조금 이해가 되었다	9	32.1	2	18.2	4	30.8
	현실적이지 않지만 중요하다	9	32.1	0	0.0	5	38.5
	예술 감상에 교육이 꼭 필요하지 않다	3	10.7	3	27.3	1	7.7
	예술은 특정 부류의 것이 아니다	5	17.9	4	36.4	1	7.7
예술가에 대한 인식 변화	거부감이 다소 줄어들었다	6	22.2	1	10.0	4	33.3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존재다	9	33.3	4	40.0	4	33.3
	자신도 예술을 할 수 있다	2	7.4	3	30.0	0	0.0
인식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이유	예술, 예술가에 대해 잘 모르겠다	5	21.7	1	11.1	13	48.1
	예술은 교육 계층의 전유물이다	6	26.1	1	11.1	4	14.8
	기타	7	30.4	7	77.8	1	3.7

주: 상위 항목 위주로 선별, 재구성

도 있다고 보았다.

먼저 세 그룹 간 예술 체험의 유무를 묻는 항목에서는 거의 비슷한 분포의 답변이 나왔다. 단지 예술가와의 만남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방문자(60.0%)와 프로그램 참여자(72.2%) 그룹의 다수가 '있다'고 답했으나, 비방문자에서는 현격히 '없다'(88.2%)로 나왔다. 하지만 예술가에 대한 생각에서는 대체로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자'에 의견이 모아졌다.

금천예술공장을 통한 예술 및 예술가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해 방문자(60.5%) 및 프로그램 참여자(55.6%) 그룹이 긍정적으로 답을 한 것에 비해 비방문자 그룹은 '없다'(73.5%)라는 답이 현격히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여전히 예술과 예술가에 대해 잘 모르겠다'(48.1%)가 가장 많은 답변이었다. 하지만 지역 내 금천예술 공장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른 그룹과 유사하게 '그렇다'라는 의견을 주었으며, 추후 참여 의지에서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세 그룹 간 인식 변화의 적극도를 비교해 볼 때도 실제로 프로그램 참여 그룹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특별히 '예술은 특정 부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는, '자신도 예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창작 주체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른 두 그룹과 다르게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여, 참여도에 비례하여 인식변화가 적극적으로 일어난다는 논리를 유추할 수 있었다.

또한 흥미로운 지점은 세 그룹 간 인구통계학적 비교라 할 수 있는데,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로그램 참여자 그룹이 학력이나 평균 소득

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다는 점이다. 또한 직업에서도 전업 주부나 전문인력 군이 높은 편이어서 이는 비방문자 그룹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쟁점 및 시사점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하면, 전반적인 수준에서 창작공간의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금천구에 예술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지역사회의 이미지나 환경 개선에 긍정적이라는 입장¹¹⁾이었고, 실제로 예술을 이해하려는 의지와 관심도 표명되었다는 점에서 창작공간의 지역적 맥락은 충족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룹별 비교를 통해 인식 변화의 계기가 주로 방문 및 프로그램 참여의 빈도와 상관됨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추후 지역주민의 방문 기회 확대나 프로그램 참여의 독려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끌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룹별 인구통계학적 비교에서 프로그램 참여자 그룹이 학력이나 소득, 직업에서 다른 그룹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예술 향유나 참여에서 진입장벽이 여전히 높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시 말하면 문화자본의 논리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과 함께 예술은 고급문화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인정하게 되며, 따라서 비방문자 그룹에게 예술은 여전히 거리가 먼 이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생업에 종사해야 하는 이유 때문이라도 예술은 생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¹²⁾

반면 프로그램 참여자 그룹을 통한 변화는 단

11) "문화공간이 부족한 금천구에 금천예술공장이 생겨 좋다"(지벨리밴드), "공단지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많았는데 금천예술공장이 들어서서 반가웠다"(금천미세스), "외국에서 온 작가들을 위해 메뉴를 개발하고 그들과 교류를 하게 되어 흥미롭다"(김법천국사장) 등의 의견이 있었다.

12) "자리를 비울 수 없을 뿐더러 생업으로 시간을 낼 수 없지만, 자녀들에게는 교육적으로 좋은 공간이라 생각한다"(자영업자), "금천예술공장의 잘 꾸며진 벤치와 건물 외관이 좋지만, 여전히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다른 세계의 것이다"(인근 공장 노동자)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5> 그룹별 인구통계학적 사항

구분		방문자		프로그램 참여자		비방문자	
		빈도	%	빈도	%	빈도	%
최종학력	초등학교 졸업	0	0.0	2	11.8	1	3.0
	중학교 졸업	2	4.7	2	11.8	4	12.1
	고등학교 졸업	22	51.2	2	11.8	23	69.7
	전문대학교 졸업	6	14.0	2	11.8	2	6.1
	대학교 졸업	9	20.9	3	17.6	3	9.1
	대학원 졸업 이상	4	9.3	6	35.3	0	0.0
월평균 소득(수입)	100만원 이하	6	16.2	2	11.0	6	20.0
	250만원 이하	12	32.4	3	16.7	12	40.0
	350만원 이하	9	24.3	3	16.7	9	30.0
	550만원 이하	7	18.9	5	27.8	3	10.0
	550만원 초과	3	8.2	5	27.8	0	0.0
직업	전업주부	6	13.3	5	27.8	3	8.8
	자영업	10	22.2	1	5.6	9	26.5
	생산직(공장근로자, 기능공 등)	13	28.9	2	11.1	12	35.3
	서비스직(유통, 운전자 등)	1	2.2	0	0.0	4	11.8
	사무행정직(회사원, 은행원 등)	2	4.4	2	11.1	2	5.9
	학생	3	6.7	3	16.7	1	2.9
	일반 공무원	0	0.0	1	5.6	0	0.0
	일반전문직	1	2.2	0	0.0	0	0.0
	교사 및 교육 전문인력	3	6.7	3	16.7	1	2.9
	예술가	1	2.2	0	0.0	0	0.0
	기타	5	11.1	1	5.6	2	5.9

주: 무응답률은 교육의 경우 방문자 4.4%, 프로그램 참여자 5.6%, 비방문자 2.9%이었고, 소득의 경우 방문자 17.8%, 프로그램 참여자 0%, 비방문자가 11.8%이었음.

순히 인식에서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활동으로 구현되고 있어 주목할 만한 쟁점을 던져준다. 이는 곧 금천예술공장 입주 작가가 주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참여한 바 있는 금천지역 주민(주부)이 프로그램 이후에 금천미세스라는 단체를 만들어낸 것을 말한다. 현재 이 단체는 금천예술공장에 입주 단체로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작업을 진행하는 것과 함께 금천 지역주민과 금천예술공장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금천미세스의 활동은 주민 주체의 활동을 실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단의 상징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이 자체로 창작공간의 지역적 역할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다고 본다. 오히려 판단을 유보한 상태에서 그것이 갖는 상징적 의미를 배가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비방문자 그룹을 위한 주말을 이용한 공간 개방과 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도 고려할 수 있겠다.

V. 결론

본 연구는 3년간 운영 시기를 거친 금천예술공장의 존재에 따른 지역주민의 인식 변화를 살펴본 것으로, 여기서 주어진 일정한 성과를 토대로 후속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일단 창작공간의 사회적 영향관계를 추정하는 일차적인 단계로서 조사 연구를 실행한 점에서 성과가 있겠지만, 보다 세부적인 수준에서 지역주민의 예술 인식의 내용을 조사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고 본다. 다시 말하면 지역주민이 생각하는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문 예술가에 의한 엘리트 예술로 한정된 것이어서, 이 자체로 주민 주체의 예술 활동을 전망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의 예술 및 예술가, 그리고 금천예술공장 자체의 지역적 효과에 대한 인식 변화는 커뮤니티 아트에서 말하는 보다 넓은 의미의 예술로 확대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방법론적 측면에서 추후 예술의 사회적 영향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보다 세분화된 지표와 효과 영역을 만들어낸 후, 일정한 시기가 지난 후 다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결론도 잠정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영향연구의 방법론을 취하였다고는 하나, 지극히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인식 및 태도 변화에 집중한 것이어서 방법론을 진전시키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창작공간의 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평가의 틀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평가의 맥락에서가 아니라, 커뮤니티 아트의 다양한 접근과 그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유의미한 성과를 살피기 위한 작업이라 하겠다. 이는

곧 문화민주주의의 기반을 이루고, 창조도시의 일원으로서의 지역주민을 주체화함으로써 예술의 사회적 영향을 입증하는 계기를 위한 것으로서 의미가 부여된다.

참고문헌

- 박신의, 2011, "문화예술공간, 지역사회, 이웃: 벨기에 브뤼셀의 '레 알 드 샤에백'", 『문화예술경영학연구』, 6(1): 33~54.
- 서울문화재단, 2009, 『유휴시설을 활용한 서울의 예술창작 공간 조성』.
- _____, 2010, 『공적 영역에서의 예술의 역할: 지역재생의 과제와 커뮤니티 아트』, 금천예술공장 국제심포지엄, 2010. 11. 04.
- 정희선 · 김희순, 2010, 『금천구의 인구 · 산업 특성과 커뮤니티 아트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서울문화재단.
- Arts Council England, 2004, *The Impact of the Arts: Some Research Evidence*, London: Arts Council England.
- Bacon, B. S. and Korza, P., 2010, "Articulating the Civil and Social Impacts of the Arts: The Arts & Civic Engagement Impact Initiative at Americans for the Arts" *Culture Work*, 14(4), University of Oregon.
- Bazin, H., 1998, "La socialisation de l'art, les ateliers-résidences", in PEPS 56/57: 74~83.
- Belfiore, E. and Bennett, O., 2008, *The Social Impact of the Arts: An Intellectual Histor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de Waresquiel, E., 2001, sous la direction de, *Dictionnaire des Politiques Culturelles de la France depuis 1959*, Paris: Larousse.
- Belfiore, Eleonora and Bennett, Oliver, 2008, *The Social Impact of the Arts: An Intellectual History*, Palgrave Macmillan.
- Guetzkow, J., 2002, "How the Arts Impact Communities:

- An introduction to the literature on arts impact studies”, Taking the Measure of Cultural Conference, June 7~8, 2002, Center for Arts and Cultural Policy Studies, Princeton University.
- Hurstel, J., 2009, *Une nouvelle utopie culturelle en marche?-essai sur une vision de l'action culturelle en Europe*, collection la culture en questions, Toulouse: éditions de l'attribut.
- McCarthy., K., Ondaatje, E., Zakaras, L., and Brooks, A., 2004, *Gifts of the Muse: Reframing the Debate about the Benefits of the Arts*, Santa Monica: RAND Institute.
- Pettit, B. and DiMaggio, P., 1997, *Public Sentiment Towards the Arts: A Critical Reanalysis of 13 Opinion Surveys*, Center for Arts and Cultural Policy Studies, Princeton University.
- Raffin, F., 2010, “Une véritable diversité culturelle ressort des politiques culturelles en Europe”, in *Projets Culturels et Pariticipation Citoyenne-Le rôle de la médiation et de l'animation en question*, coordonné par Françoise Liot, Paris: L'Harmattan, 61~72.
- Ramsey, W. T. and Rentschler, R., 2005, “Toward a New Understanding of the Social Impact of the Arts”, Arts and Cultural Management Conference, Proceeding, Montreal.
- Reeves, M., 2002, *Measuring the Economic and Social Impact of the Arts: A Review*, London: Arts Council England.

원 고 접 수 일 : 2012년 9월 26일

1 차 심 사 완 료 일 : 2012년 10월 24일

최 종 원 고 채 택 일 : 2012년 11월 29일